

역학			번호: J - B - 16					
제 목	국문	변형된 복약확인 치료(mDOT) 수행 후의 균음전율에 대한 연구 부 제: 보건소 균양성 폐결핵 환자를 대상으로						
	영문	Sputum Smear Conversion during mDOT(modified Directly Observed Treatment) at a Health Center in Seoul						
저 자 및 소 속	국문	황택근, 김순덕 ¹⁾ , 유세화 ²⁾ , 이준영 ¹⁾ , 신유철 ³⁾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, 1)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, 2)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호흡기내과, 3)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						
	영문	Taik-Gun Hwang, Soon-Duck Kim ¹⁾ , Se-Hwa Yoo ²⁾ , June-Young Lee ¹⁾ , You-Cheol Shin ³⁾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, Korea University; 1)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, College of Medicine; 2) Respiratory Division,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, Korea University Medical Center; 3)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, Inje University, Seoul Paik Hospital						
분야	역학	발표자		발표형식	포스터			
진행상황	연구완료							
<p>연구목적: DOT를 보건소에서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게 변형시킨 mDOT는, 환자가 꾸준하게 약을 복용하도록 하기 위해 집중치료기간(투약 후 2개월)동안 1주에 1회씩 환자와 의료인 또는 의료보조요원이 면담하여 투약 및 복약감독, 상담 등을 수행하는 일주일 간격의 복약확인 치료법을 의미한다. 이를 균양성 폐결핵 환자들에게 적용시킨후, 이 mDOT군의 균음전율(sputum smear conversion)을 self군의 그것과 비교하여, mDOT의 수행이 균양성 폐결핵 환자에서의 균음전율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함이다.</p> <p>연구방법: 서울시 S보건소에서 2001년 10월 8일부터 2002년 4월 23일까지 등록된 균양성환자 52명중에서 24명은 mDOT군, 28명은 자가복용(self)군으로 분류하였다. 24명의 mDOT군중 조절 안 되는 당뇨 동반 환자 2명, 외국인 1명, 기타 1명이 제외된 20명의 mDOT군을 선정한 후, 성별, 폐결핵의 범위, 재발유무, 연령을 짹짓기 변수로 해서 일대일 1:1 짹짓기를 실시한 20명의 self군을 선정하여 전향적으로 균음전율을 비교연구 하였다. 본 연구의 경우 mDOT라는 중재만이 있고 무작위추출과 이중맹검이 없기때문에 일종의 quasi-experimental study라고 할 수 있다.</p> <p>분석방법은 SAS version 8.1을 이용해 짹지어진 자료에 대한 McNemar의 χ^2-검정을 사용하였다. 본 연구의 경우, p-value가 0.10 이하인 경우를 임상적으로 유의하다고 간주하였다.</p> <p>연구결과: 치료 2주 후, 균음전율은 self군에서 50%, mDOT군에서 78.57%로 mDOT군이 self군에 서보다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($p\text{-value}=0.1573$). 치료 1개월에는 mDOT군의 음전율이 self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(83.33% vs 50%, $p\text{-value}=0.0455$). 2개월의 균음전율 역시 self군보다 mDOT군에서 비교적 유의하게 높은 균음전율을 나타냈다(95% vs 75%, $p\text{-value}=0.1025$).</p> <p>결론: 이번 연구에서 집중치료기간 중에 변형된 복약확인 치료를 mDOT군의 20명 모든 환자에게 수행했으며, mDOT가 균양성 폐결핵 환자의 전염성기간(배균기간)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단축 시켰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. 우리나라에서 DOT는 폐결핵 환자의 치료에 효과적일 수 있고, 어떤 고위험군에서 유용하리라 생각된다. 앞으로 좀 더 큰 규모의 전향적(prospective)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.</p>								